이덕일의 '역사의 창'

책임지지 않는 권력

임진왜란과 6·25의 공통점은 예견된 전쟁이었다는 점이다. 임란 2년 전인 선조 23년(1590년) 7월 조선이 통신사를 도요토미 히데유시(豊臣秀吉)를 만나게 한 이유는 일본이 '조선의 길을 빌려 명나라를 침략하겠다'는 이른바 '정명가도(征明假道)'가 실제 의사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은 이듬해 승려 현소(玄蘇)를 회례사(回禮使)로 조선에 보냈고, 조정은 오억령(吳億齡)에게 접대하게 했다. 현소는 "내년에 조선의 길을 빌려서 명나라를 침범할 것"이라고 재차 확언했고, 오억령은 그대로 조정에 보고했다. 그러자 조정은 오억령을 파직시켰는데, 이에 대해 '선조수정실록'은 "밀려난 것이다"라고 평하고 있다. 왜 쓸데없는 말을 해서 혼란을 일으키느냐는 문책이었다.

1949년 6월 13일 채병덕 육군총참모장은 북한군의 전면적인 남침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38선을 뚫을 자신이 있으며 대통령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는 담화를 발표했다.('연합신문' 6월 14일) 같은 해 8월 27일에는 "북한괴뢰집단에서 남공(南攻)을 꾀하고 있다는 것은 한갓 모략선전에 지나지 않고 역사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침범 못할 것이다…북벌에 관해서는 언제나 대통령의 명령만 있으면 하겠다"고 재차 공언했다.(연합신문 8월 31일)

오억령이 보고한 대로 선조 25년(1592년) 4월 13일 일본군은 대군을 보내 임진왜란의 개막을 알렸다. 북한군 또한 1950년 6월 25일 대거 남침으로 6·25라는 동족상잔 전쟁의 전단(戰端)을 열었다. 무려 358년의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란 때의 선조 조정과 6·25 때 이승만 정권의 행태는 놀랄 정도로 흡사하다. 6·25 발발 이틀 후인 1950년 6월 27일 신성모 국무총리 서리는 무쵸(Muccio) 주한 미대사에게 "대통령과 내각이 일본으로 가서 '망명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무쵸 미대사는 "나는 아무런 언질을 주지 않았다"라고 본국에 보고했다고 '미국 기밀 외교 문서'(FRUS: 1950년, 176쪽)는 말하고 있다. 북벌을 공언하다가 전쟁 발발 이틀 만에 망명, 그것도 일본으로 망명 의사를 타진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선조도 마찬가지로 4월 28일 탄금대에 배수진을 쳤던 신립 장군의 패전 소식을 듣자마자 요동 망명을 결심했다. 이때 유성룡이 "대가(大駕: 임금의 가마)가 우리 국토 밖으로 한 걸음만 떠나면 조선은 우리 땅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반대하자 선조는 "내부(內附: 요동에 가서 붙는 것)하는 것이 본래 나의 뜻이다"('선조수정실록' 25년 5월 1일)라고 나라를 버리는 것이 자신의 소신임을 굽히지 않았다.

문제는 전란 종결 후 이들이 국란에 책임을 지기는커녕 계속해서 국정을 장악했다는 점이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임란 때 왕조가 교체되었어야 마땅했다. 최소한 선조는 쫓겨났어야 했다. 그러나 왕조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나아가 극단적 친명 사대주의 세력인 서인들이 인조반정을 일으켜 광해군을 내쫓는 바람에 병자호란의 병란을 다시 불렀다. 주자학 사대주의 지배 집단을 대체할 정치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6·25 전쟁 이후도 마찬가지였다. 6·25 전쟁은 인민군의 대거 남침이 직접적 계기지만 그 뿌리는 광복 후 사회주의 계열은 말할 것도 없고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세력까지 모두 제거된 후 두 친일 정당인 자유당과 한민당(민주당)이 여야를 이루어 국정을 운영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4·19 시민혁명으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으나 친일 세력을 대거 등용하는 반역사적이고 무기력한 국정 운영 끝에 5·16 군사 쿠데타를 맞은 것 또한 그 잘못된 뿌리가 만들어 낸 현상이다.

6·10 시민항쟁으로 87년 체제가 만들어졌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대통령 직선제 이후, 특히 노무현 대통령 이후 실패한 대통령들이 계속되는 현재의 87년 체제가 역사적 시효를 다했음을 말해 준다. 세월호 참사 이후 8년 만에 재발한 이태원 참사는 우리 사회의 현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의료칼럼

노안 교정술

김 재 봉
신세계안과 원장

나이가 들면 누구나 신체 구조와 기능이 점점 떨어진다. 질병과 무관하게 나이가 들어 신체의 전반적인 활력이 떨어지고 모든 생리적 기능이 저하되는 과정을 노화라고 한다. 20대, 30대에서는 느끼지 못하지만 40대 이후로는 신체 여러 부위의 노화를 한 해 한 해 온몸으로 절감하게 된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외부 또는 주위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빠르게 진행되기도 한다.

노안도 역시 노화 현상의 일종이다. 먼 곳을 보다가 가까운 사물을 보려면 눈의 굴절력이 변해야 한다. 그러나 각막과 안구의 길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수정체의 굴절력을 증가시킴으로써 가까운 사물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조절이라고 한다.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가 딱딱해지고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로 인해 조절력이 감소돼 근거리 시야나 작업에 장애를 받게 되는데 이를 노안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노안은 보통 40대 후반부터 서서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노안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 30~40대가 44%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이 노안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어린 나이부터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된 데다 사용 시간마저 늘면서 수정체 조절이 과도해져 40세 이전에도 노안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증상을 일컬어 '디지털 눈 증후군' 이라고도 부른다.

젊은 사람들은 노안 증상이 찾아오면 인정하기보다는 단순히 눈이 피로하다고 생각해 방치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 어지럼증이나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눈이 피로하고 가까운 거리의 글씨와 사물이 흐릿하게 보인다면 반드시 안과를 방문해 검진을 받아야 한다.

다음의 대표적인 노안 증상 중 세 개 이상에 해당하면 검사가 필요하다. 40세 이상이다.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를 또렷하게 읽기 힘들다. 책이나 신문을 볼 때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 근거리 작업 시 눈을 찡그리거나 비빈다. 돋보기의 도움을 받으면 또렷하게 보인다. 어두운 환경, 몸이 피로한 경우 시력 저하를 느낀다.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번갈아 볼 때 초점 전환이 늦어진다.

노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돋보기 착용이 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착용하는 것이 어렵고, 활동이 많은 젊은 나이에 돋보기를 착용하는 것은 더더욱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특히 요즘은 전자 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노안의 연령대가 낮아짐으로써 편리성뿐만 아니라 미용상 목적으로도 노안 교정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노안 라식은 일반 라식과 달리 한 눈은 근거리에, 다른 눈은 먼 거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한다. 이렇게 짝눈을 만들어 가까운 것과 먼 것을 모두 잘 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중간 거리는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수술 후에도 노안과 백내장은 진행되기 때문에 수년 후 다시 노안 증상을 느끼게 되고 백내장 발생 시 수술이 필요해진다.

노안과 백내장이 동반된 경우 그로 인해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한 후에 노안 교정용 다초점 렌즈를 삽입하는 노안 백내장 수술이 적합하다. 이 방법은 국내에서 오랫동안 안전성이 검증된 백내장 수술법과 같다.

노안 라식은 두 눈을 동일한 시력으로 교정하는 라식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술 경험이 많은 안과 전문의가 집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레이저로 각막을 절삭하는 것인 만큼 각막이 얇거나 질환이 있는 경우, 고도근시, 과거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받아서는 안된다. 그리고 수술 오류에 의해 눈부심, 빛 번짐, 시야 흐림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고 수정체낭의 손상이나 압력 증가, 결막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수정체낭에 삽입하는 노안 교정용 다초점 렌즈는 3중, 4중, 연속 초점 등 종류가 다양하다. 각각의 특성과 교정하는 범위가 다르다 보니 환자의 직업,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충분한 상담이 이뤄져야 수술 후 만족도가 높아진다.

기 고

안전할 권리

오 성 인
시인

눈으로 보면서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눈과 귀에 들어오는 속보가 전부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번화가에서 주말 밤에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은 꽃다운 청춘들이 허망하게 숨을 거뒀다. 핼러윈(Halloween) 데이를 이틀 앞둔 지난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 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해밀톤호텔 앞 좁은 골목길에 축제를 즐기기 위한 인파가 몰리면서 353명이 사상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시민 156명이 희생되고 197명이 부상당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의 최대 인명 사고였다. 참담한 소식에 며칠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핼러윈은 매년 10월 31일, 카톨릭 축일인 만성절(萬聖節: Sollemnitas Omnium Sanctorum) 전날에 영미권에서 다양한 복장을 입고 벌이는 축제로 켈트인의 전통 축제인 '사윈'(Samhain)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켈트인은 한 해의 마지막 날에 각종 음식을 마련하여 죽음의 신에게 제례를 거행함으로써 망자들의 혼을 달래고 악귀를 물러나게 했다. 이때 악령들에게 피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한 일부 사람들이 스스로를 같은 악령으로 보이게 하고자 기괴한 모습으로 꾸몄는데, 이것이 작금의 핼러윈 분장 문화의 시초이다.

핼러윈 당일에 한해 괴물이나 마녀, 유령으로 분장한 아이들이 이웃집으로 사탕과 초콜릿을 얻으러 다니는 미국 본토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추석 연휴를 마친 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전까지 꽤 긴 시간을 두고 축제 형식으로 즐기는 편인데 그 중심지가 바로 이태원 일대다. 용산 미군기지와 인접해 있는 이태원은 영미 문화가 빠르게 전파되는 곳이었고, 방문자의 대부분이 미군 청년들인 까닭에 가족적 성격보다는 클럽을 중심으로 한 유흥적 성격이 짙었다. 여기에 기존 세대에 비해 영어 교육이 강조되어 핼러윈 문화를 학습할 기회가 많았던 2000년대생들이 성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문화를 향유하게 되었다. 가족 간 갈등이나 제사 등의 문제로 설날이나 추석 같은 고유의 명절이 점차 부정적으로 인식되는데 반해 핼러윈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부담 없이 어우러져 즐길 수 있어서 대중에게 익숙한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 혹은 이웃이나 다름없는 이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부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배려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참사 이틀 전 열린 핼러윈 대책 회의에 불참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야유회와 바자회 등에 참석하며 하루를 보냈다고 자신의 SNS에 적었다. 심지어 참사 당일에는 고향인 경남 의령에 갔다가 오후 8시가 넘어서야 서울로 돌아왔다. 또 참사 당일 4시간 전쯤인 저녁 6시 34분부터 참사 직전인 밤 10시 11분까지 무려 11건에 달하는 신고 전화가 빗발쳤지만 경찰에서는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후 뒤늦게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거리에는 수십 구의 시신이 가득했다. 보고를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참사가 일어난 지 18시간이 넘게 지난 30일 오후에 해외 출장에서 귀국했다.

상황이 이러한데 책임자인 용산구청장과 서울시장, 용산경찰서장, 경찰청장,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이 보이는 행태는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다. "핼러윈 행사는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라며 "역할 다했다"는 용산구청장의 발언에서부터 "경찰력 증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는 행정안전부 장관, "한국 정부의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라고 보시느냐."는 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통역이)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라고 농담한 국무총리, 참사가 아니라 사고이며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라는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

인종·성별·지역·종교 등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는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정부는 희생자들의 죽음을 더 이상 방패 삼지 말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기 바란다. 그것은 동시에 안전을 약속받는 일이다. 세월호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우리는 그 누구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우리 모두가 가해자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과 안식을 빈다.

社 說

영유아 급감, 악화되는 보육 환경 개선 대책을

저출산과 청년 인구 유출로 전남 지역 영유아 수가 최근 4년 새 25%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이 덩달아 줄면서 양육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전남여성가족재단이 최근 발간한 '보육 통계로 본 전남 보육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도와 각 시군이 출산 장려 정책을 앞다퉈 시행하고 있음에도 지난 2017년 1.33명이던 전남의 합계 출산율이 2021년에는 1.02명으로 급격히 낮아졌다. 출생아가 줄어들면서 만 0세에서 6세까지 영유아 인구수도 2017년 10만 3413명에서 2018년에는 9만 7018명으로 10만 명대가 무너졌다. 이어 2021년에는 7만 7930명으로 4년 사이 24.6%나 감소했다. 여기에는 청년들과 영유아를 키우는 20~30대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것이 한몫하고 있다.

영유아 급감은 보육 시설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도내 어린이집은 2017년 1241개소에서 2021년 1051개소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같은 기간 5만 3772명에서 4만 2241명으로 줄었다. 정원 충족률 역시 76.5%에서 70.8%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전남 도내 297개 읍면동 중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이 지난 2021년 96개곳(32.3%)으로 늘었다.

읍면동 세 곳 중 한 곳에는 어린이집이 없어 인근 지역 시설에 아이를 맡겨야 할 만큼 보육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다. 전남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은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 달려 있다. 전남도와 시군은 출생아와 영유아를 늘리기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강구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보육 서비스 공백을 메워야 한다. 다문화·조손 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도 절실하다. 아울러 부모들의 양육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육아를 위한 환경 개선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범죄 전담 인력 증원 대응력 높여야

광주·전남 지역에서 외국인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다. 얼마 전 광주 원도심 유흥가에서는 심야에 외국인들끼리 집단 난투극을 벌일 정도로 표면화되고 있다.

외국인들의 난투극은 지난 30일 새벽 4시 광주시 동구 불로동 구시청사거리에서 펼쳐졌다. 평소 외국인들로 붐비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시비가 붙어 10여 명이 두 패로 나뉘어 패싸움을 벌였다. 이들은 러시아인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으로 추정되는데 싸움을 말리던 미국인까지 폭행하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모두 사라졌다. 당시 폭행 장면은 SNS를 통해 급속하게 확산됐는데 사진을 보면 넘어진 사람에게 올라타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심야 집단 난투극을 지켜본 시민들은 한때 공포에 떨어야 했다.

지난 3년간 경찰에 접수된 외국인 범죄는 광주가 728건, 전남이 2301건으로 3000여 건이 넘는다. 폭력 범죄가 가장 많지만 마약 밀수 등 강력 범죄도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2~3년 사이 광주·전남에서는 마약 사범이 다섯 배 가량 급증했다. 지난 9월에는 베트남 국적의 20대 불법 체류자가 5억 1000만 원 상당의 합성대마 12.6㎏를 식료품으로 위장 반입해 유통시켰다가 광주경찰에 붙잡혔다.

여기에 범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불법 체류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최근 4년 사이 불법 체류자는 두 배 가량 늘었는데 항만을 통한 입국 같은 고전적 방식 대신 출입국사무소 신고 의무가 없는 '결혼 이민' 목적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취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불법 체류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현황 파악조차 힘들어 대처도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불법 체류자 단속부터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다문화 시대 외국인 거주자가 갈수록 늘수밖에 없는 만큼 외국인 범죄 전담 인력을 증원해 대응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괴리의 시대

일반적으로 로마제국 멸망 원인으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노예제의 폐단이다. 강제 노동으로 생산 효율이 떨어지고, 착취에 시달린 노예들은 수시로 반란을 꿈꿨다. 사회 지도층인 귀족의 지나친 사치와 향락은 평민, 노예, 이민족 등의 반발을 초래했다. 전성기에는 강력한 군대가 있었지만, 결국 내부에서부터 허물어지면서 외부의 침입을 견뎌내지 못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는 15년만에 단명했다. 강한 힘으로 천하를 움켜쥐었던 진시황은 흉노족의 침입에 대비하고 자신의 권위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켰다. 전쟁에서 벗어난 평민들은 강제 부역으로 죽어나갔다. 아이러니하게도 진승은 만리장성을 쌓다가 난을 일으켰고, 한고조 유방은 인부 호송을 맡았다가 도망자가 속출하자 은거하다 봉기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제1 신분 성직자, 제2 신분 귀족, 제3 신분 평민으로 구성된 삼부회(三部會)의 결정에 부르주아를 중심으로 한 평민들이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루이 16세가 악화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삼부회를 소집했는데, 평민 대표들은 성직자·귀족 대표들에게 항상 수적으로 열세였다. 등골이 휘도록 세금을 바치는데, 토지 40% 이상을 소유한 귀족과 성직자가 세금 한 푼 안 내는 현실에 분노한 평민들은 스스로 무장한 뒤 바스티유 감옥으로 쳐들어갔다.

출범 6개월을 맞은 윤석열 정부가 벌써부터 위기에 봉착했다. 다소 감정적인 전 정부와의 선 긋기, 권위적인 보수정권의 자세 등에 더해 정부의 무능력을 여실히 증명해 버린 이태원 참사로 신뢰 기반을 상실한 것이 그 원인이다. 무엇보다 참사 이후 총리, 장관, 경찰청장, 대통령실 및 정부 고위 관계자 등의 무책임하고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발언과 행동은 전 국민적인 분노를 샀다. 이는 서울대, 검찰, 50대 이상 고시 출신, 남성, 부유층 등으로 대표되는 그들과 일반 국민과의 인식 차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평생을 어려움 없이 마치 '귀족'처럼 출세 가도를 달려온 이들이 상식적인 사고에서 괴리돼 그들만의 틀에 갇혀 허우적대고 있다. 정부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은 불가피하다. 새 인물은 평범한 어려움을 겪은,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리더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윤현석 정치부 부국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21
전 남 본 부 220-0680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